

##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노인의 참여동기와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에서 참여관여도 조절효과 연구

김종식\* · 윤천성\*\*

### 초 록

본 연구는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독립변수인 “참여동기”가 종속변수인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참여관여도”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참여동기”는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의 세 가지 요인들을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성공적인 노화”는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 인생참여의 세 가지 측면을 상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참여관여도”의 분석을 통하여 노인대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참여관여도”가 노인평생교육운영에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인천지역의 5개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재학생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이 79.1%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20.9%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70대-80대가 약90%로 나타났으며 독거가 109명(40.7%), 부부만 86명(32.1%)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 19명(7.1%), 국졸 91명(34.0%), 중졸 92명(34.3%), 고졸 58명(21.6%), 대졸이상 8명(3.0%)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건강과 경제로 나타났다.

참여관여도가 참여동기 및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의 참여관여도는 단순한 활동의 참여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독거노인문제, 건강과 경제문제 등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대학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노인대학, 참여동기, 성공적인 노화, 참여관여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HRD리더십전공 박사과정(주저자) (E-mail: ctakjs7@naver.com)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HRD리더십전공 교수(교신저자) (E-mail: staryoun@hanmail.net)

투고일: 2018년 11월 20일, 수정일: 2018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일

## I. 서론

현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기능의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노년기는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로서 많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인이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의 여건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노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곧 정서적인 면에서나 정신적, 신체적 면에서 쇠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다. 노인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전통적인 관습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노년학에서 성공적 노화라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탄생시킨 Rowe & Kahn(1998)은 성공적 노화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품위와 존귀를 지키면서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인생에서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대학은 노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사회 구조적 환경 하에서 문화적 가치관과 규범이 상호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을 통한 노인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교육은 더욱 더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대학은 노인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해방시켜 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시 말해 노인들 자신이 그들의 입장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현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서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며, 젊은 세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탐구하고, 이를 통해 노인대학의 운영 및 정책수립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노인대학은 노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로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커짐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응과 자아개발을 돕기 위한 교육과 노인들의 사회생활 적응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8). 노인대학은 법적으로는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에 포함되어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평생교육법 제2조”와 복지차원에서 노인여가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 36조”에 근거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대학은 여가활동과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 참여동기(Participation motive)

Kotler, Bowen & Makens(2006)은 소비자행동을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나누고 그 중 심리적 요인은 개인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기, 인식, 학습 그리고 믿음과 태도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욕구의 강도가 충족해졌을 때 동기가 되고 인식을 형성하며 나아가 학습, 믿음, 태도를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제시한다. 일반 상품에 관계된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교육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동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노인대학의 참여동기는 노인대학의 마케팅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노인을 유치하고 삶의 질의 향상과 학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를 갖게 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유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기는 쉽지 않다. 동기지향성과 관련된 연구는 Houle(1961)이 22명의 특별히 능동적인 계속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해 성인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목적지향성’, ‘활동지향성’, 그리고 ‘학습지향성’의 세 가지로 유형화 시켰다. 첫째,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은 교육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써 사용한다. 이들은 학습 활동을 어떤 한 기관이나 방법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참석한다. 둘째, 활동지향적인 사람들은 특정 목표를 획득하거나 어떤 과목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참가한다. 셋째, 학습 지향적인 사람들은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한다. 학습을 통해 알고 성장하려는 근본적인 바람을 지니고 있으며, 활동은 지속적이고 평생을 간다(권두승, 2000).

### 3.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개념의 기원은 기원전 44세기경 Cicero가 썼던 수필집 ‘훌륭한 노화(good aging)’에서 “훌륭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돌보고, 적절히 술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Torres, 2002). 그의 수필에서 노화는 ‘불 건강(illness)’과 혼돈되는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 변화와 생산적 가능성을 포함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Torres, 1999).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두하면서 노년기의 의미와 생활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노화의 개념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이다. 성공적인 노화개념은 ‘성공적’ 및 ‘노화’라는 두개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노화의 과정은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노력에 의해 지연 또는 향상이 가능함은 물론, 높은 수준의 인지적 및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의 자기수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율성, 환경조절, 목표의식, 개인의 성장을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Baltes(1990)는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 생산성과 개인적 통제, 생활만족을 성공적 노화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학자들마다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김미혜, 신경림(2005)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여 제시 하였다. 그리고 김동배(2008)는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을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로 제시하여 성공적 노화를 정의 하였다. 또한 남기민, 이정은(2012)은 노년기를 전 생애 발달적 과정에 있어서 노년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 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 관점에서 심리적 안녕상태에 이르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로 정의 하였다.

### 4. 참여관여도(Participation Involvement)

참여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목적으로 이루려는 활동이다(네이버사전, 2018). 관여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의미하며, 특정행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적인 태도 상태를 의미한다(Mannell, 1993). 또한, 관여의 주체는 개인이며, 각각된 자극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관여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Antil, 1984). 관여도의 개념은 사회심리학의 사회적 판단이론(Social Judgement Theory)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데, Sherif & Cantril(1947)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소비자 행동을 조정하는 변수로 이용되면서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요 영역으로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신규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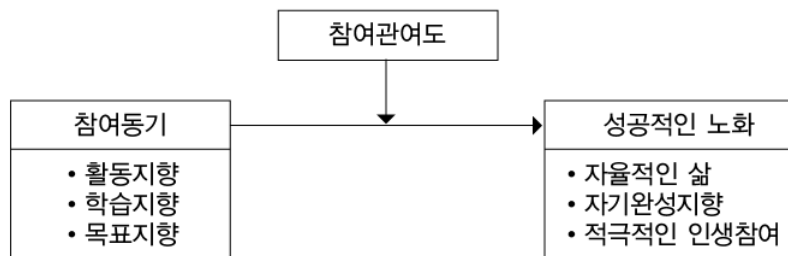
Mitchell(1979)는 관여도를 ‘외부자극이나 상태에 의해 고취된 각성과 관심 및 의욕의 양을 나타내주는 내적 상태’라고 하였으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를 말한다. 많은 학자들은 관여도의 기본적인 개념 및 특징을 “지각된 개인적 연관성”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대상, 상황, 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수준이 그것들에 대해 개인적인 연관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각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서원재, 2002).

문정원(2014)은 ‘동기 및 목표에 대한 감정 상태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고유의 필요성, 가치, 관심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지각된 관련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떤 계기에 의해 발생하는 단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속성을 내포하는 정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자들도 연구의 표본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참여관여도는 개인의 관심의 수준, 개인들이 갖는 신념체계의 정도,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관련성이 인간의 자아정체감을 드러내는 응답, 감정적 애착도를 반영하는 조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참여관여도가 노인대학의 참여동기와 성공적인 노화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인 참여동기는 하위변인으로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성공적인 노화로 하위요인은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참여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는 참여관여도로 설정하여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H1. 참여동기는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활동지향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학습지향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목표지향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활동지향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학습지향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6. 목표지향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7. 활동지향은 적극적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8. 학습지향은 적극적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9. 목표지향은 적극적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참여관여도는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참여관여도는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참여관여도는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참여관여도는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참여관여도는 참여동기와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1. 참여관여도는 활동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2. 참여관여도는 학습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3. 참여관여도는 목표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4. 참여관여도는 활동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5. 참여관여도는 학습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6. 참여관여도는 목표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7. 참여관여도는 활동지향과 적극적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8. 참여관여도는 학습지향과 적극적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9. 참여관여도는 목표지향과 적극적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1) 참여동기(Participation motive)**

Houle(1961) 등은 참여동기는 참여자의 특성과 태도를 이해하고 참여자가 평생학습을 통하여 학습을 지속하고 그 가치와 과정을 즐기며 자기 주도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것을 의미(권두승 외, 2016)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ule(1961)의 척도를 최운실(1986)이 한국형 학습참여동기 척도에 맞게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조광미(2017)가 “성인여성학습자가 지각한 평생교육기관특성, 참여

동기, 학습만족도 및 학습성과에 대한 구조관계 분석”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논문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활동지향은 9문항, 학습지향은 6문항, 목표지향은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 측정하였다. 활동지향은 좋은 인간관계, 새로운 친구, 사회교류, 인생의미, 문제해결, 봉사, 새로운 교육환경,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의미하며 학습지향은 휴식, 기술획득, 삶의 만족, 학교교육부족, 자아실현, 배움 자체, 배움 연속으로, 목표지향은 교육활동참여, 자격증취득, 사회생활경쟁, 성취, 전문적 수행, 교양습득 등의 의미로서 정의를 하고 척도를 선택하였다.

## 2)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요소의 척도는 외국의 성공적인 노화 개념과 비교할 때 한국 노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 개념은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건강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건강을 말한다. 부유하고, 출세하고, 건강한 것보다는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김동배, 2008).

본 연구에서의 성공적인 노화의 척도는 한국문화와 실정에 맞게 개발된 김동배(2008)의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척도개발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성공적인 노화요소로서 자율적인 삶은 9문항, 자기완성지향은 6문항, 적극적인 인생참여는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 측정하였다.

## 3) 참여관여도(Participation Involvement)

본 연구에서의 참여관여도란 노인대학에 대한 참여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노인의 여가활동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인대학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관심의 정도는 참여하려는 노인의 주관적 가치평가이다. 즉, 노인대학에 대한 주관적 가치부여에 따라 참여욕구가 결정되며, 참여욕구는 참여관심의 정도로 나타난다.

측정도구는 Laurent & Kapferer(1985)가 개발한 다차원적인 관여도 척도(IPScale)를 Dimanche, Havitz & Howard(1991)가 여가활동 소비자의 관여도 측정 설문지(CIP)를 수정한 것을 한사비나(2015)의 “삶의 질과 여가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12문항으로,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명	구성요소		설문문항	문항 수	출처
독립 변수	참여 동기	활동지향	I	1-9	20	Houle(1961), 김종길(2013), 조광미(2017)
		학습지향		10-15		
		목표지향		16-20		
종속 변수	성공적인 노화	자율적인 삶	II	1-9	20	김동배(2008)
		자기완성지향		10-15		
		적극적인 인생참여		16-20		
조절 변수	참여관여도		III	1-12	12	Laurent, Kapferer(1985) Dimanche, Havitz, Howard(1991) 한사비나(2015)
인구통계학적 변수			V	1-7	7	연구자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5개의 있는 노인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2018년 9월 20일-9월 30일 까지 예비조사 결과를 처리한 후 현직의 복지, 심리상담, 경영 전문가와 문항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천지역의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1일 - 11월 1일 두 달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의 이해와 성실한 응답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설문활동을 진행하였다. 참여하고 있는 대상에게 300매를 배부하고 참여자 본인이 직접 설문지에 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 중 268부가 회수되어 89.3%의 회수율을 보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05$ ,  $p<.01$ ,  $p<.001$  하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하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참여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여성 212명(79.1%), 남성 56명(20.9%)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60대 25명(9.3%), 70대 139명(51.9%), 80대 104명(38.8%)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사별 129명(48.1%), 기혼 102명(38.1%), 기타 37명(13.8%)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은 혼자 109명(40.7%), 부부만 86명(32.1%), 2세대(자녀) 42명(15.7%), 3세대 가족(자녀, 손자녀) 31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당면문제는 건강문제 172명(64.2%), 경제문제 60명(22.4%), 인간관계문제 30명(11.2%), 가정문제 6명(2.2%)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무학 19명(7.1%), 국졸 91명(34.0%), 중졸 92명(34.3%), 고졸 58명(21.6%), 대졸이상 8명(3.0%)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높이기 위해서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요인에 대한 점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이 되는 요인의 수에 의해 결정되었고, 각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 관련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0.4이하인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했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값의 범위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채서일(2006)).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56	20.9
	여성	212	79.1
연령	60대	25	9.3
	70대	139	51.9
	80대	104	38.8
배우자	사별	129	48.1
	기혼	102	38.1
	기타	37	13.8
가족구성	부부만	86	32.1
	3세대 가족(자녀, 손자녀)	31	11.6
	2세대(자녀)	42	15.7
	혼자	109	40.7
당면문제	건강문제	172	64.2
	경제문제	60	22.4
	가정문제	6	2.2
	인간관계문제	30	11.2
학력	무학	19	7.1
	국졸	91	34.0
	중졸	92	34.3
	고졸	58	21.6
	대졸이상	8	3.0
전체		268	100.0

### 1) 참여동기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참여동기에 대한 총 20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고유치 1 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의 전체 변량은 82.346%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으로 요인 1(33.707%)은 ‘활동지향’, 요인 2(26.260%)는 ‘학습지향’으로, 요인 3(22.380%)은 ‘목표지향’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3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참여동기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
2. 새로운 친구를 사귈다.	.857	.267	.189
9.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823	.332	.250
5. 앞으로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낸다.	.821	.254	.323
3.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배우는 활동에 참여한다.	.814	.295	.229
4. 사회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	.796	.329	.212
8.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환경을 접한다.	.779	.316	.214
1. 여럿이 모여 함께 배우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776	.224	.233
6.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	.756	.378	.289
7. 다양하게 봉사하는 삶의 준비를 한다.	.725	.372	.309
13. 학교교육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06	.843	.218
11. 지식이나 기술 획득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느낀다.	.312	.829	.278
14. 배움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실현을 위함이다.	.344	.821	.242
12. 학습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는다.	.360	.817	.292
15. 무엇인가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겁다.	.342	.817	.211
10. 가정이나 일로부터 휴식을 취한다.	.390	.799	.270
18. 계획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277	.236	.882
19.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270	.188	.865
17. 사회생활의 경쟁에서 뒤지고 싶지 않다.	.255	.224	.859
20. 직업에 관련된 제한된 지식 이외 폭넓은 지식 교양에 접한다.	.284	.218	.814
16. 학위(수료증)나 자격증을 취득한다.	.220	.379	.765
고유값	6.741	5.252	4.476
분산설명(%)	33.707	26.260	22.380
누적분산설명(%)	33.707	59.967	82.346
신뢰도			

KMO=.959, Bartlett's test  $\chi^2=6411.392$  (df=190, p=.000)

## 2)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총 20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고유치 1 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의 전체 변량은 84.715%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으로 요인 1(34.036%)은 ‘자율적인 삶’, 요인 2(26.924%)는 ‘자기완성지향’으로, 요인 3(21.872%)은 ‘적극적 인생참여’로 명명하였다. 또한 3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참여관여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참여관여도에 대한 총 6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고유치 1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의 전체 변량은 73.302%로 나타났다. 즉, 하위요인으로 요인 1(73.302%)은 ‘참여관여도’로 명명하였다. 또한 1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8. 나는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828	.219	.167
4.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의식주 생활을 한다.	.817	.193	.208
3. 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817	.153	.192
2. 나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811	.249	.096
5. 나는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한 남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803	.298	.160
6.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사리분별에 큰 문제가 없다.	.803	.235	.159
7.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산다.	.797	.172	.246
9. 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788	.196	.276
1.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771	.150	.125
10. 나는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291	.835	.289
14. 나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288	.827	.269
15.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258	.826	.301
11. 나는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이 있다.	.305	.797	.323
12. 나는 내가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280	.794	.261
13.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292	.772	.294
16.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229	.335	.784
17.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311	.280	.760
20. 나에게서는 여가 혹은 종교 활동 중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	.257	.304	.759
19. 나에게서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한 친구가 있다.	.280	.356	.750
18. 나는 사회활동(여가 및 종교활동 등)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	.256	.390	.741
고유값	6.807	5.385	4.374
분산설명(%)	34.036	26.924	21.872
누적분산설명(%)	34.036	60.960	82.832
신뢰도	.960	.974	.952

KMO=.953, Bartlett's test  $\chi^2=6847.666$  (df=190, p=.000)

〈표 5〉 참여관여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여가관여도
4. 나에게 있어 노인대학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899
5. 노인대학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893
10. 노인대학에서 활동을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되는 것 같다.	.889
2. 노인대학은 삶에 가장 즐거운 것들 중 하나이다.	.868
12.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864
3. 노인대학은 내가 만족하는 것을 중 하나이다.	.863
8.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어느 형태이든 간에 노인대학과 연결되어 있다.	.848
11. 노인대학에서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848
9. 노인대학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기회를 제공한다.	.842
7. 나는 내 친구들과 노인대학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832
6. 다른 활동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	.811
1. 노인대학은 나에게 중요하다.	.811
고유값	8.796
분산설명(%)	73.302
누적분산설명(%)	73.302
신뢰도	.966
KMO=.953, Bartlett's test $\chi^2=3516.875$ (df=66, p=.000)	

###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노인대학 참여동기는 하위요인별 ‘활동지향’이 평균 4.17점, ‘학습지향’이 평균 4.11점, ‘목표지향’이 평균 3.71점 순으로 나타났고, 성공적인 노화는 하위요인별 ‘자율적인 삶’이 평균 4.16점, ‘자기완성지향’이 평균 3.94점, ‘적극적인 인생참여’가 평균 3.8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관여도는 평균 4.22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대학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은 성공적인 노화의 하위요인별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1$ ), 참여관여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성공적인 노화의 하위요인별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참여는 참여관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표 6>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구분	M±SD	참여동기			성공적인 노화			참여 관여도
		활동 지향	학습 지향	목표 지향	자율적 인 삶	자기 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활동지향	4.17±.926	1						
학습지향	4.11±1.012	.716***	1					
목표지향	3.71±1.165	.610***	.598***	1				
자율적인 삶	4.16±.849	.720***	.604***	.561***	1			
자기완성지향	3.94±1.096	.509***	.464***	.541***	.609***	1		
적극적인 인생참여	3.89±1.125	.493***	.477***	.589***	.594***	.742***	1	
참여관여도	4.22±.803	.605***	.576***	.569***	.657***	.584***	.685***	1

\*\*\* p<.001

## 4. 가설의 검증

### 1) 가설1의 검증

H1. 참여동기는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활동지향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학습지향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목표지향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sup>2</sup>)은 54.9%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7.299,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활동지향( $\beta=.530$ , p<.001), 목표지향( $\beta=.161$ , p<.01), 학습지향( $\beta=.128$ , p<.05)이 자율적인 삶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적인 삶에 있어서는 노인대학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sup>2</sup> (Adj.R <sup>2</sup> )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57	.167		7.509	.000	107.299 <sup>***</sup>	.549 (.544)
활동지향	.486	.057	.530	8.470 <sup>***</sup>	.000		
학습지향	.107	.052	.128	2.073 <sup>*</sup>	.039		
목표지향	.118	.040	.161	2.959 <sup>**</sup>	.003		

종속변수 : 자율적인 삶

\* p<.05, \*\* p<.01, \*\*\* p<.001

- H<sub>1-4</sub>. 활동지향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5</sub>. 학습지향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6</sub>. 목표지향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자기완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sup>2</sup>)은 34.7%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6.82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 $\beta=.344$ , p<.001), 활동지향( $\beta=.235$ , p<.01)이 자기완성지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완성지향에 있어서는 노인대학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 활동지향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자기완성지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sup>2</sup> (Adj.R <sup>2</sup> )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78	.260		4.531	.000	46.824 <sup>***</sup>	.347 (.340)
활동지향	.278	.089	.235	3.123 <sup>**</sup>	.002		
학습지향	.097	.081	.090	1.209	.228		
목표지향	.323	.062	.344	5.239 <sup>***</sup>	.000		

종속변수 : 자기완성지향

\*\* p<.01, \*\*\* p<.001

- H<sub>1-7</sub>. 활동지향은 적극적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8</sub>. 학습지향은 적극적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9</sub>. 목표지향은 적극적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sup>2</sup>)은 38.1%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F=54.177,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 $\beta=.430$ , p<.001), 활동지향( $\beta=.150$ , p<.05)이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있어서는 노인대학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 활동지향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9>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sup>2</sup> (Adj.R <sup>2</sup> )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72	.260		4.128	.000	54.177***	.381 (.374)
활동지향	.182	.089	.150	2.044*	.042		
학습지향	.125	.080	.113	1.556	.121		
목표지향	.415	.062	.430	6.736***	.000		

종속변수 : 적극적 인생참여

\*p<.05, \*\*\*p<.001

## 2) 가설2의 검증

**H<sub>2</sub>. 참여관여도는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sub>2-1</sub>. 참여관여도는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관여도가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sup>2</sup>)은 43.1%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F=201.660, p<.001). 독립변수로서 참여관여도( $\beta=.657$ , p<.001)는 자율적인 삶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적인 삶에 있어서는 참여관여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0> 참여관여도가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sup>2</sup> (Adj.R <sup>2</sup> )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29	.210		5.849	.000	201.660***	.431 (.429)
참여관여도	.695	.049	.657	14.201***	.000		

종속변수 : 자율적인 삶

\*\*\*p<.001



H2-2. 참여관여도는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관여도가 자기완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sup>2</sup>)은 34.1%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37.359, p<.001). 독립변수로서 참여관여도( $\beta=.584$ , p<.001)는 자기완성지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완성지향에 있어서는 참여관여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여관여도가 자기완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sup>2</sup> (Adj.R <sup>2</sup> )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76	.292		1.973	.050	137.359***	.341 (.338)
여가관여도	.797	.068	.584	11.720***	.000		

종속변수 : 자기완성 지향

\*\*\*p<.001

H2-3. 참여관여도는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여관여도가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sup>2</sup>)은 46.9%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34.792, p<.001). 독립변수로서 참여관여도( $\beta=.685$ , p<.001)는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있어서는 참여관여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참여관여도가 적극적 인생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sup>2</sup> (Adj.R <sup>2</sup> )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1	.269		-.599	.550	234.792***	.469 (.467)
참여관여도	.959	.063	.685	15.323***	.000		

종속변수 : 적극적 인생참여

\*\*\*p<.001

### 3) 가설3의 검증

**H<sub>3</sub>. 참여관여도는 참여동기와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sub>3-1</sub>. 참여관여도는 활동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sub>3-2</sub>. 참여관여도는 학습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sub>3-3</sub>. 참여관여도는 목표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자율적인 삶의 관계가 참여관여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로 노인대학 참여동기를 모델 I 에, 조절변수로 참여관여도를 모델 II 에,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III 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 의 설명력은 54.9%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7.299,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활동지향( $\beta=.530$ , p<.001), 목표지향( $\beta=.161$ , p<.01), 학습지향( $\beta=.128$ , p<.05)이 자율적인 삶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관여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II 의 설명력은 60.2%로 5.3%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9.468,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참여관여도( $\beta=.309$ , p<.001)가 자율적인 삶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관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I 의 설명력은 61.2%로 1.0%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8.691, p<.001). 즉,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중에는 학습지향과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 $\beta=.189$ ,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관여도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학습지향과 자율적인 삶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자율적인 삶의 관계에서 참여관여도의 조절효과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eta$	t	p	$\beta$	t	p	$\beta$	t	p
활동지향(A)	.530	8.470***	.000	.438	7.196***	.000	.480	7.664***	.000
학습지향(B)	.128	2.073*	.039	.065	1.097	.274	.029	.461	.645
목표지향(C)	.161	2.959**	.003	.079	1.484	.139	.068	1.256	.210
참여관여도(M)				.309	5.898***	.000	.345	6.187***	.000
(A)×(M)							.184	1.797	.074
(B)×(M)							.189	2.043*	.042
(C)×(M)							-.066	-.826	.409
F-value(p)	107.299***			99.468***			58.691***		
R <sup>2</sup>	.549			.602			.612		
Change of R <sup>2</sup>				.053			.010		

\*p<.05, \*\*p<.01, \*\*\*p<.001

H<sub>3-4</sub>. 참여관여도는 활동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sub>3-5</sub>. 참여관여도는 학습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sub>3-6</sub>. 참여관여도는 목표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자기완성지향의 관계가 참여관여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로 노인대학 참여동기를 모델 I 에, 조절변수로 참여관여도를 모델 II 에,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III 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 의 설명력은 34.7%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6.82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 $\beta$ =.344, p<.001), 활동지향( $\beta$ =.235, p<.01)이 자기완성지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관여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II 의 설명력은 41.5%로 6.8%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6.720,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참여관여도( $\beta$ =.352, p<.001)가 자기완성지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관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I 의 설명력은 42.9%로 1.4%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7.907, p<.001). 즉,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중에는 목표지향과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 $\beta$ =.223, p<.05)가 통계적으로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관여도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과 자기완성지향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자기완성지향의 관계에서 참여관여도의 조절효과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eta$	t	p	$\beta$	t	p	$\beta$	t	p
활동지향(A)	.235	3.123**	.002	.131	1.775	.077	.123	1.623	.106
학습지향(B)	.090	1.209	.228	.018	.252	.801	.004	.059	.953
목표지향(C)	.344	5.239***	.000	.250	3.877***	.000	.289	4.377***	.000
참여관여도(M)				.352	5.535***	.000	.301	4.451***	.000
(A)×(M)							.147	1.178	.240
(B)×(M)							.009	.078	.938
(C)×(M)							.223	2.298*	.022
<i>F-value(p)</i>	46.824***			46.720***			27.907***		
$R^2$	.347			.415			.429		
Change of $R^2$				.068			.014		

\* p<.05, \*\* p<.01, \*\*\* p<.001

- H<sub>3-7</sub>. 참여관여도는 활동지향과 적극적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sub>3-8</sub>. 참여관여도는 학습지향과 적극적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sub>3-9</sub>. 참여관여도는 목표지향과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적극적 인생참여의 관계가 참여관여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로 노인대학 참여동기를 모델 I 에, 조절변수로 여가관여도를 모델 II 에,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III 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 의 설명력은 38.1%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4.177,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 $\beta=.430$ , p<.001), 활동지향( $\beta=.150$ , p<.05)이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관여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II 의 설명력은 52.8%로 14.6%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3.407,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참여관여도( $\beta=.515$ , p<.001)가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관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참여관여도의 상

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Ⅲ의 설명력은 53.6%로 0.9%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42.988, p<.001$ ). 즉,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 중에는 목표지향과 참여관여도의 상호작용 변수( $\beta=.188,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관여도는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 목표지향과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관계에서 참여관여도의 조절효과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eta$	t	p	$\beta$	t	p	$\beta$	t	p
활동지향(A)	.150	2.044*	.042	-.003	-.043	.966	-.015	-.222	.824
학습지향(B)	.113	1.556	.121	.007	.113	.910	.023	.338	.735
목표지향(C)	.430	6.736***	.000	.293	5.053***	.000	.318	5.360***	.000
참여관여도(M)				.515	9.029***	.000	.483	7.919***	.000
(A)×(M)							.055	.485	.628
(B)×(M)							-.106	-1.052	.294
(C)×(M)							.188	2.155*	.032
F-value(p)	54.177***			73.407***			42.988***		
R <sup>2</sup>	.381			.528			.536		
Change of R <sup>2</sup>				.146			.009		

\*p<.05,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독립변수인 “참여동기”가 종속변수인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참여관여도”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참여동기”는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의 세 가지 요인들을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성공적인 노화”는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 인생참여의 세 가지 측면을 상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참여관여도”의 분석을 통하여 노인대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참여관여도”가 노인평생교육운영에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인천지역의 5개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재학생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이 79.1%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20.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70대-80대가 약90%로 나타났으며 독거가 109명(40.7%), 부부만 86명(32.1%)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 19명(7.1%), 국졸 91명(34.0%), 중졸 92명(34.3%), 고졸 58명(21.6%), 대졸이상 8명(3.0%)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건강과 경제로 나타났다.

가설 1의 검증에서는 노인대학 참여동기가 자율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자율적인 삶에 있어서는 노인대학 참여동기의 하위 요인별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활동지향적인 사람들은 특정 목표를 획득하거나 어떤 과목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참가한다. 노인대학의 참여활동을 통하여 외로움, 고독감을 위로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교육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써 사용한다. 적극적인 인생참여에서는, 학습 지향적인 사람들로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며 학습을 통해 성장하려는 근본적인 바람을 지니고 있다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참여관여도가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참여관여도는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작용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3의 검증에서는 노인대학 참여동기와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가 참여관여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관여도는 성공적인 노화의 하위변수인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인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참여동기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비전을 갖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노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안에서 함께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노인이 100세 시대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고립되지 않고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이 필요하다. 노인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노인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노인도 사회와 가정에 의존하는 생활보다는 생애기간 동안 본인의 잠재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후생활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한 노인평생교육이 필요하며, 노인대학은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대학에 대한 참여관여도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인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연구와 개발 및 생활 환경 별 평생교육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곽비주(2017). 노인대학 공간의 의미와 노인학습자의 의례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권두승(2000). 성인학습 지도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권두승·최운실(2011). 평생교육경영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남기민·이정은(2012).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57, 85-112.
- 남기민·이정은(2012).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85-112.
- 문정원(2014). 골퍼의 여가관여도, 여가기능 및 여가지속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서원재(2002). 한국 프로야구 웹사이트 소비자의 관여도특성과 콘텐츠 만족도, 웹사이트 충성도 및 재방문의사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신규리(2004). 골프 참여자의 관여도와 운동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95-107.
- 조광미(2017). 성인여성학습자가 지각한 평생교육기관특성, 참여동기, 학습만족도 및 학습성과에 대한 구조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원대학교.
- 최혜경 외 역(2002). 성공적인 노화. 서울: 신정.
- 채서일(200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최지숙(2018). 실버태권도 참여동기 및 마케팅믹스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한사비나(2015). 진지한 여가가 여가관여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Antil, J. H.(1984).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03-209.
- Baltes, P. B., &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ling, A.(1993). The concepts of successful and positive aging. *Family Practice*, 10, 449-453.
- Flood, M.(2002). Successful aging: A concept analysis.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and Testing*, 6(2), 105-108.
- Houle, C. O.(1961).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otler, P., & Armstrong, G.(1994). *Principles of Marketing*. Englewood Cliffs:
- Kotler, P., Bowen, J. T., & Makens, J. C.(2006).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4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a l, I.
- Mannell, R. C.(1993). High-investment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Committed Serious.
- Mitchell, A. A.(1979). Involvement: A potentially important mediator of consumer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1), 191-196.
- Ryff, C. D.(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4-55.
- Sherif, M., & Cantril, H.(1974). *The psychology of ego involvements, social attitudes and identifications*. New York: Wiley.
- Sherif M., & Cantril H.(1947). *The psychology of ego-involvement, social attitudes and identification*. NY: John Wiley & Sons Inc.
- Torres, S.(1999). A cultural relevant the or etica frame 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ing.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 Torres, S.(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1.
- Dimanche, F., Havitz M. E., & Howard, D. R.(1991). Testing the involvement profile(IP) scale in the context of selected recreational and touristic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1), 51-66.
- Lascu. D., Giese. T., Toolan, C., Guehring, B., & Mercedes, J.(1995). Sport involvement: A relevant individual difference factor in spectator sport. *Sport Marketing Quarterly*, 4(4), 41-46.

## ABSTRACT

###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vol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motive of the Elderly and the Successful Aging Using University of the Third Age

Kim, Jong-Sik\* · Youn, Chun-Sung\*\*

\*Doctoral Course, Major in HRD Leadership, Seoul Venture University (Lead author)  
(E-mail: ctakjs7@naver.com)

\*\*Professor, Major in HRD Leadership, Seoul Venture University (Corresponding)  
(E-mail: staryoun@hanmail.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ticipatory involvement" on the dependent variable "successful aging",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purpose is to look at the impact. The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tion motivation", assumed three factors: activity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goal orientation. The dependent variable "successful aging" assumed three aspects of autonomous life, self-perfectionism, and active participation in lif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elderly colle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rticipatory involvement", which is a control variable, and how the "participation involvement" influences the elderly lifelong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students in the five counties of Incheon area were surveyed.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79.1% of the respondents were women and 20.9% of men were women. The participants in the 70s-80s showed 90% of the participants, 109 (40.7%) living alone, and 86 (32.1%) married couples. Most of the elderly did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There were 19 students (7.1%), 91 college graduates (34.0%), middle school graduates (34.3%), 58 high school graduates (21.6%) and 8 college graduates (3.0%). The worrying problem appeared in health and economy.

Participation involvement has a positive (+) effect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uccessful aging. Therefore, participation involvement of elderly college students is not a

simple activity participation but an important controlling variable to improve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lderly universiti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s one of the measures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living alone, health problems and economic problems.

**Keywords :** University of the Third Age, Participation motive, Successful Aging,  
Participation involvement